

시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

강 영 기*

차 례

- I. 프롤로그
- II. 성산포를 나타내는 문학공간의 대표적 의미
- III. 성산포가 지닌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
- IV. 결론

I. 프롤로그

문학은 다양한 소재 혹은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작가에게 공간적 의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작가는 소재 혹은 대상을 통해 자신이 지닌 의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문학적 작업은 문학 지리학의 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학 지리학에서 볼 때 시의 대상이 되는 문학적 의미 공간은 지역 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의 대상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과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소통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적 대상을 통한 의미 파악은 문학 연구의 과정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시적 대상을 통한 의미 파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악은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소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¹⁾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성산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괴 성산 일출봉이 우뚝 서 있어 유명하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지닌 성산포는 일출의 이미지를 통해 제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성산포는 문학적으로도 그 의미를 내포한다. 성산포는 문학공간적으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그리움, 일출 혹은 새로운 시작, 자연의 서정, 제주의 심장, 생동감, 세상살이에 대한 한, 섭터 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의미를 토대로 성산포에 얽힌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와 관련한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핀 연구는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²⁾와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³⁾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와 관련한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피는 연구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의도는 결국 제주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시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를 구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학 지리학⁴⁾적 관점위에서 작품의 해석을 통해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6)와 『제주문학전집-시선집1』(제주문인협회, 1996), 『제주문학전집-시선집2』(제주문인협회, 1996)이다.

-
- 1)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p. 35.
 - 2) 강영기, 위의 글, 위의 책.
 - 3) 강영기,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영주어문』(영주어문학회, 2007).
 - 4) 문학 지리학은 문학과 지리가 경계를 넘어 만나는 개념이다. 모든 문학작품들에는 그것의 배태지로서의 장소를 머금는다. 문학 지리학은 특정 지역에서 꽃핀 문학적 자산을 자연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 그 지리의 위치, 지형, 인심,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문화, 공동체의 체험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것이 문학 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 것이다. 【장석주, 「장소의 탄생」(작가정신, 2006), pp. 28~29.】

II. 성산포를 나타내는 문학 공간의 대표적 의미

성산포가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에서 그 의미가 짙은 것은 그리움이다. 또한, 성산포에 일출봉이 있다보니 일출 혹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 중 큰 틀을 형성하는 그리움과 일출 혹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1. 그리움의 의미

성산포가 지닌 다양한 의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움이다. 무엇이 성산포를 그리움의 공간 혹은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성산포와 부딪히는 바다와 유채꽃 등 자연 환경이 성산포를 그리움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초록빛 통신을 하염없이 띄우던 바닷새
눈부신 고요처럼
눈을 뜨던 바람은
어느덧 그리운 성산포로 달려가고

유채꽃 들판엔
언제나
어머니의 혼이 노오란 불씨로 타고 있음.

— 가영심, 「성산포 연가-새」⁵⁾ 에서

5)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p.17.

인용 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바닷새”, “바람”을 통해 “성산포”에서 멈춘다. 그리고 성산포에 활짝 핀 유채꽃 들판을 보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느낀다. 이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 인용 시의 제목이 “성산포 연가”라면 여기서 “연가”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이다. 즉, 시인은 성산포를 둘러싼 자연물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다음은 성산포를 통해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녕 내가 사랑했던 것 중에서
아직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목마른 바람이 섬으로 불면
꽃은 저서 바다로 가고
푸실푸실
등 하나 켜줄 이 없는 내 그리움은
또 무너지는데

……(중략)……

목선 갈매기들이 바람 타는 바닷가
이 우울한 섬
멀리 하나의 목선은 떠나지만
내 사랑은 지지 않고 있다

— 강종완, 「우울한 성산포」⁶⁾에서

시인은 “아직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언술을 통해 사랑이 떠남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인의 상황은 바람을 목마르게 표현하고, 꽃은 저서 바다로 간다고 표현하게 만든다. 또한 시인은 “등

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제주문인협회, 1996), p.79.

하나 켜줄 이 없는 내 그리움”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하지만, 시인은 “바람 타는 바닷가 이 우울한 섬”에서 “하나의 목선”은 떠나지만 “내 사랑은 지지 않고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독자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별의 아픔과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한다. 그래서 시인에게 성산포는 우울한 공간이자 그리움의 공간이 된다.

지금까지 그리움이라는 의미로 다가서는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자연환경을 통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떠난 후 마주한 성산포에서 느끼는 그리움이다.

2. 일출 혹은 새로운 시작

성산포는 성산일출봉을 껴안고 있다. 그래서 성산포의 또 다른 문학 공간적 의미는 일출 혹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파에 시달려도
 허다한 세상사
 다 안아 삼켰네

일출봉
 영겁의 찬란한 빛
 새천년 후천년
 두고두고 햇님을 맞는다.

— 박성순, 「성산 일출봉」⁷⁾에서

인용 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일출봉에 오른 감회를 시로 형상화한다. 시인은 일출봉에서 해가 뜨는 일출의 장면을 통해 그것이 “비바람이 몰아

7)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p.196.

치고 세파에 시달려도 허다한 세상사 다 안아 삼켰”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시인이 지닌 인식은 바로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인은 그 새로움을 두고두고 가슴에 간직하고 심은 욕망을 시구로 표현한다. 그것은 바로 “두고두고 햇님을 맞는다.”라는 언술을 통해 나타난다. 다음에 인용한 시 역시 일출의 감격과 어두운 현실에서 삶의 생기 혹은 새로운 시작을 붙여넣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용궁에 잉태했다
터져오른 불덩인가

수평선에 선혈을 뿌려
어엿한 현신일레

오르다
뛰어오르며
새 아침을 마시네

불그레 하늘 자락
해맞이 얼굴들도
같이 달아 붉어지네

어두운
뒷 골목들도
고루 밝게 비추리

……(중략)……

침침한
날이어들란
굽이굽이 보고저

— 정태무, 「성산일출」⁸⁾에서

인용 시에는 해가 뜨는 장면이 먼저 그려진다. 그것은 “용궁에서 잉태했다 터져 오른 불덩인가 수평선에 선혈을 뿌려 어엿한 현신일레”를 통해 드러난다. 시인이 해가 뜨는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인 자신의 목소리 혹은 바램을 나중에 들려주기 위한 시적 전략이다.

한편, 시인은 “오르다 뛰어오르며 새 아침을 마시네”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출을 통해 느끼는 새로움을 이야기한다. 또한 시인은 이 언술을 통해 시상의 흐름을 해 또는 자연물에서 시인 자신에게로 옮겨 온다. 그리고 “불그레 하는 하늘 자락 해맞이 얼굴들도 같이 달아 붉어지네”를 통해 해가 뜬 하늘과 그 밑에선 인간의 하나됨을 이야기 한다. 즉, 물아일체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아일체의 상황에서 시인은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준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보는 해가 어두운 뒷골목도 비추어 달라는 시인의 욕망이다. 여기서 어두운 뒷골목은 시인의 생각하는 소외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상에 시름하는 사람에게도 시인이 바라보는 일출처럼 생기 있고, 새롭게 모든 일들이 골고루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욕망 또는 바램은 “침침한 날이어들란 굵이굽이 보고저”라는 표현을 통해 한층 더 강조된다.

이상을 통해 성산포가 지닌 또 다른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일출 혹은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일들 모두가 골고루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성산포가 지닌 두 개의 큰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리움과 일출 혹은 새로움이다. 다음에서는 성산포가 지닌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Ⅲ. 성산포가 지닌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

성산포의 의미는 그리움, 일출 혹은 새로움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

8)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2』(제주문인협회, 1996), p. 589~590.

음에 제시한 작품들은 성산포에 대한 또 다른 문학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다음에 인용한 작품은 자연의 서정 혹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월의 성산포에는
먼발치 지나치는 우도봉 웃음 앞에
노란 점들만 찍어져 있습니다
이맘때
성산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무더기 유채꽃이 되어 나옵니다.
유채꽃이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 안상근, 「사월의 성산포」⁹⁾에서

“먼발치 지나치는 우도봉”과 “노란 점”이 만든 오버랩 속에는 4월의 성산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인은 그 성산포를 “노란 점”으로 표현한다. 이 속에서 시인은 성산포의 자연 서정적 모습 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문학 공간적 의미로 담는다.

또한 시인은 “이맘때 성산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무더기 유채꽃이 되어 나옵니다”와 “유채꽃이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를 통해 유채꽃과 사람을 동일시한다. 시인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유는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과 그것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 보여주는 자연의 순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시인은 유채꽃과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사람도 자연 그대로임을 강조한다. 다음에 인용한 시는 일출봉을 제주의 심장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9)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p.277~278.

비릿한 바람이
어둠을 물고갑니다.

멀리 수평선이 솟아오르는
두 주먹 불끈 쥐 8월의 아침

일출봉은 별떡이는
제주의 심장입니다.

— 안재운, 「제주 일출봉」¹⁰⁾에서

“비릿한 바람이 어둠을 물고”간다는 것은 새벽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새벽은 해맞이를 하는 시인에게 두 주먹 불끈 쥐게 만든다. 시인이 두 주먹을 불끈 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해 뜨는 장관에 대한 반사 작용일 것이다.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는 식의 생각을 시인은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생각은 일출봉에 대한 의미를 생성한다. 그것은 바로 “일출봉은 별떡이는 제주의 심장”으로 표현되는 제주의 심장이라는 문학 공간적 의미이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 역시 생동감 넘치는 일출봉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깎아 세운 절벽들은
咆哮하는 사자여라
큰 바다 삼키다가
주춤하고 앉았는가
산허리 뛰어 넘을 듯
물보라가 솟는구려.

— 이인식, 「일출봉」¹¹⁾에서

10)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p.279

11)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2』(제주문인협회, 1996), p. 514.

시인은 일출봉을 “포효하는 사자”, “큰 바다 삼키다가 주춤하고 앉”은 모습, “산허릴 뛰어 넘을 듯 물보라가 솟”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일출봉의 모습은 바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 그리고 시인이 일출봉을 오르면서 느끼는 감회이다. 이러한 시인의 감회를 시인은 생동감이라는 의미로서 일출봉을 형상화한다. 성산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또는 제주의 심장, 생동감의 의미로 다가서는 것만은 아니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은 앞의 작품과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어머니 어머니
 한숨은 어디서 싹트나요
 싹트지 않나요 버려도 좋을 세상
 버리지 못하는 세상
 세상은 슬프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휘유 어찌다 어머니 한숨 소리가
 말해요 휘유 세상은 다 그런 것
 점점이 눈물꽃 떨어뜨리다 휘유
 가고 마는 세상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 말해요 그렇게 어머니가
 어머니는 결코 입을 열지 않지만
 휘유 어머니가 말해요 휘유라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휘유 시름 많은 나날들 말해요 휘유라고 어머니가

— 김광렬, 「성산포에서-1」¹²⁾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시인에게는 하소연의 대상이다. 시인은 세상을 “슬프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인식한다. 시인이 이러한 인식에는 세상살이에 대한 한의 내재한다. 그래서 시인은 “한숨은 어디에서 싹트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 어머

12)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제주문인협회, 1996), p.366.

나는 이미 세상살이 속에서 혹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한을 내적으로 받아 안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도, 어머니도 “취유”라고 한숨만 쉴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인은 인용 시에 등장하는 “취유”의 반복을 통해 세상살이의 고달픔 혹은 한의 내재를 시를 통해 이야기한다. 이 속에 성산포가 지닌 또 하나의 문학 공간적 의미가 생성된다.

흘러왔으니 또 흘러가야 하리
 성내 너머 조천 세화 성산장 지나서
 내일은 초하룻장 길을 따라 간다네
 없는 고향은 생각해서 무엇하리
 이 산천 어니메나 다 내 고향인데
 가네 어허이 구경꾼들 사이로
 감상자를 지고 떠도는 운선같이
 일출봉 아래턱에 누워 오는 잠을 쉬고 갈까
 저 바다 저녁 해에 반짝이는 물결처럼

— 나기철, 「성산아리랑」¹³⁾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시인은 발걸음 가는 대로 길을 찾아 떠난다. 시인이 길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 “없는 고향”이라는 고향부재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인은 “흘러왔으니 또 흘러가야 하리”라고 이야기한다. 시인이 “조천, 세화, 성산장”을 지난 만난 곳은 성산포 바다이다. 그곳에서 시인은 “감상자를 지고 떠도는 운선”을 본다. 그 운선을 “떠돈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시인은 이 속에서 “쉽”의 여유를 보여준다. 시인은 “일출봉 아래턱에 누워 오는 잠을 쉬고 갈까 저 바다 저녁 해에 반짝이는 물결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산포의 의미를 생성한다. 그것은 바로 떠돌다 지친 몸을 쉬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쉽터”의 의미이다.

지금까지 성산포가 지닌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3)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제주문인협회, 1996), p.768.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제주의 심장, 생동감, 세상살이의 한, 씬 등으로 나타난다. 이 속에서 성산포는 성산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을 맞이한다.

IV. 결론

문학 지리학의 개념 위애다 지역 문학을 접목시켜 생각하면, 지역 문학은 문학 지리학적 차원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 이유는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장소 또는 공간은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장소는 지역이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지역 문학은 한국 문학의 한 축이 된다.

지금까지 성산포와 성산일출봉이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산포가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에서 가장 많이 혹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미는 그리움과 일출 또는 새로운 시작이다. 성산포가 만든 자연은 시인에게 그리움을 싣트게 한다. 또한 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해 뜨는 장관은 시인에게 새로운 시작 혹은 희망을 준다. 그래서 그리움과 일출 또는 새로운 시작은 성산포가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로 생성된다.

한편, 성산포가 지닌 또 다른 문학 공간적 의미도 존재한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제주의 심장, 생동감, 세상살이의 한, 씬터 등이다. 이처럼 성산포에 대한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가 생성되는 이유는 성산포가 지닌 매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학 지리학적으로 볼 때 시는 지역의 자연 환경 또는 인문 환경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것에 알맞은 의미를 생성한다. 성산포와 성산일출봉을 형상화한 시 역시 그렇다.

- 핵심어: 문학 지리학, 시적 대상, 의미, 성산포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시선집1』, 제주문인협회, 199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시선집2』, 제주문인협회, 1996.

2. 논저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강영기,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2007.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학·한국인의 심상공간-중』, 논형, 2005.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28~29쪽.

<Abstract>

Literary Space Seen Through Poems On Seongsanpo

Kang Young-gi

This writing proposes to examine the meaning of poems on Seongsanpo,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so called 'literary-geographical' view. We most likely face longing for something, sun-rising or new beginning as meanings represented in the poems of Seongsanpo. Natural scenery of Seongsanpo germinates longing for something in the poet's mind. Heartbreaking! sun rising over Ilchulbong gives poets new hope or new beginning. Other literary-spatial meanings of Seongsanpo are Jeju's heart, vividness, deep sorrow of life, resting place or something, which is nature itself. This way, various literary-spatial meanings derived from Seongsanpo are wholly due to its evident attractiveness.

- Key words: literary geography, meaning of poems, poetic object, Seongsanpo